

'하나 된 마음, 제물포구의 새출발'

인천 중구, 19일 주민설명회

'제물포구' 출범이 2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 중구가 주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현)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한중문화관 4층 공연장에서 제물포구 주민소통단을 포함한 주민 200여 명을 초청해 '하나 된 마음, 제물포구의 새출발'이라는 주제로 '제물포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물포구 주민설명회'는 지난 6월 '찾아가는 동별 주민설명회'에 이어, 원도심 주민들에게 제물포구 출범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구는 원도심 7개 동을 순회하며 제물포구 출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한 바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문화 공연 ▲제물포구 새출발 퍼포먼스 ▲제물포구 키워드로 알아보는 미래 ▲제물포구 출범 추진 경과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김정현 구청장은 '제물포구 키워드'로 알아보는 미래라는 주제로 제물포구의 변화와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직접 전한다.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행정·재정·인프라 등 구체적 준비 과정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남동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남동구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0~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산모의 의사불명, 유선순상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며,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도 가능하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전국 최초 천원택배 2단계 확대 시행

인천 지하철 전 역사 60곳으로 확대, 여성·노년층 일자리 120여 개 창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물류비 절감정책 천원택배의 2단계 확대사업을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원택배는 인천시가 생활물류 혁신을 위해 지하철 역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건당 1,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생활물류 혁신모델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해 물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시행 이후 1년 만에 누적 배송 100만 건 이상을 달성하며, 약 7,4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등 시민 체감형 성공모델

로 자리 잡았다.

이번 2단계 사업 확대를 통해 인천 지하철 1·2호선 내 집화센터를 기존 30개 역사에서 전체 역사인 60개소로 확충하고, 159명의 운영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이 중 120여 명은 여성과 노년층을 신규 채용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11월 10일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 설치된 2단계 집화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집화·분류·배송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해 근무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에는 예술회관역 지하도상가 내 화장품 제조·유통업체 ㈜엔수스코리아를 찾아 인근 소상공

인 대표 5명과 현장 근로자들이 참석한 한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들은 "천원택배 시행으로 물류비 부담과 시간 절약을 통해 매출이 10% 이상 증가해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이번 2단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며, "천원택배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원택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끄는 인천형 공공생활물류 모델로서, 물류비 절감을 통한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2단계 확대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친환경 배송체계를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도시 물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하린 기자

서구,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국

민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45억원 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경진 국민은행 경인지역영업그룹대표,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국민은행과 서구청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민은행은 서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금 3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서구청은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중 2%(최초 1년에 한함)를 보

전해주는 사업이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은 출연금의 15배인 45억원 한도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1년간 대출(6년까지 연장 가능)이 가능해지며, 여기에 서구청의 이자 보전까지 더해져 경영 자금 확보와 이자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큰 금액의 출연으로 서구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힘을 보태준 국민은행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금융지원이 서구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하여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옹진군,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실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1월 10일 영흥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7개 면 전 지역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물량은 건조벼 약 2,200톤을 비롯해, 산물벼를 포함한 총 5,566톤 규모로, 농가 신청량 전량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입품종은 친들과 알찬미이며 면별 세부 일정은 ▲북도면 11월18일(화)~20일(목) ▲연평면 12월 2일(화) ▲백령면 11월 24일(월)~28일(금) ▲대청면 11월 25일(화) ▲덕적면 12월 3일(수) ▲자월면 11월 28일(금) ▲영흥면 11월10일(월)~12일(수)이다.

각 농가에서는 일정에 맞춰 톨백(800kg) 또는 포대(40kg)로 면별 지정된 수매 장소에 출하하고, 출하 시 수분율 13~15%로 건조하여야 하며 수분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급 하락 또는 매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공공비축미곡의 농가 신청량 전량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매 일정에 맞춰 지정된 수매장소에 벼를 출하해 주시고, 특히 수분을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ESG 경영추진단' 정기회 개최

IMF 아나바다 운동의 정신을 잇는 인천의 녹색 실천 ... 작은 나눔이 만드는 큰 변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7일 ESG경영추진단 정기회를 개최했다. ESG경영추진단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분야별 전문가와 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인천시교육청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ESG 경영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진 현황 △ISO45001(안전보건경

영시스템) 인증 추진 경과 등이 논의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자문 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월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ISO45001'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4년부터 추진한 ESG 경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ESG경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꾸준히 나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미래를 위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을 해소하고 다양한 학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 진로·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진로교육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소그룹 멘토링 '진짜멘토링'과 온라인 학과 멘토링 '랜선대학탐방'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210명의 청소년과 90여 명의 대학생 멘토가 참여해 진로 고민을 나누고 진학 준비에 실질적인 조언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 학생은 "대학생 멘토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제 대학생활을 간접 체험할 기회가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진로교육센터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마지막 오프라인 프로그램 '진짜멘토링'을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심하린 기자

강화고려왕도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강화공설운동장 등 관내 체육시설에서 '제1회 강화고려왕도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화군에서 처음 개최된 대규모 전국 단위 유소년 축구대회인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44개 팀이 출전했으며, 선수지도자·학부모 등 1,500여 명이 함께 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이 학년별로 실력을 겨루었다.

강화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유소년 축구대회의 성장을 모색하고, 전국 단위 체육형 스포츠 이벤트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군은 대회를 정례화하고 강화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접목해 스포츠·관광 융복합형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대회 기간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최태욱, 백지훈 선수가 직접 참여해 미래 꿈나무 선수들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다. 또한 스포츠 유튜브 채널과 협업하여 대회 주요 경기들을 생중계해 현장의 열기와 유소년 선수들의 활약상을 전국 팬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참가 선수들을 위한 챌린지 이벤트, 체험 버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하여, 경기 외에도 선수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첫 대회임에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팀이 참여해 의미 있는 출발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회 규모를 확대하고, 강화군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접목해 수도권 대표 유소년 축구대회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HYDROGEN ENERGY

경기도의 미래

안전한 수소에너지로 열어갑니다.

경기도

GBS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